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 충(忠)과 효(孝)

상현달이 어란포 바다에 달빛을 뿌렸다. 검푸른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고기비늘처럼 금빛이 번뜩거렸다. 칠천량해전에서 도도 다카토라와 함께 전공을 세웠던 와키자카는 왜선 중에서 가장 큰 안택선 장대에 올라 바다를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산도해전에서 패배했던 치욕을 설욕하러 왔는데 이순신은 여전히 강했다. 더구나 이순신 휘하에 바닷물의 흐름과 진도, 해남의 지세를 환히 꿰뚫어보는 김억추라는 장수가 있으니 함부로 덤벼들 수 없었다. 야간기습 작전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왜군 대장 와키자카는 막하의 두 장수를 불렀다.

어란포진과 벽파진해전에서 선봉장으로 나섰던 간 마사카게와 이순신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명을 받은 해적 출신 구루시마 미치후사였다.

“간민이 전해주는 첩보에 의하면 이곳 조수를 잘 아는 김억추 장수가 있다고 한다. 그자를 먼저 죽여야 싸움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것이다.”

왜군의 군수물자를 담당했던 간 마사카게가 와키자카의 말을 받았다.

“이순신 부하라고 합니다. 이순신이 그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추격했다가 바닷물이 역류하기 전에 조선수군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명랑처럼 바다물살이 빠른 시코쿠 지역에서 선대부터 해적으로 살았던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말했다.

“조수의 흐름은 조선군이나 우리 왜군이나 조건은 같습니다. 더구나 소장은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섬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 간빠구(關白)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선수군의 화포 공격입니다. 이순신의 화포공격에 우리의 조총공격은 번번이 당했습니다.”

그러자 와키자카가 말했다.

“나의 소원은 이순신을 단 한 번이라도 이기는 것이다. 벽파진에서 세 배의 전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다. 수백 배의 전력으로 이순신의 수군을 소탕해버리는 것뿐이다.

나는 우리 수군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순신의 수군을 섬멸하고야 말 것이다.”

와키자카가 말을 마치자마자 30대 후반의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순신의 목을 베어 반드시 간빠구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소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소원이 간절하더라도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이순신 옆에는 전라우수사 김억추라는 명궁이 있다. 자네에게는 염라대왕 같은 장수지. 조선의 모든 장수들이 부러워하는 명궁이니 자네가 그자를 먼저 죽이지 않고는 이순신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간 마사카게가 말했다.

“저는 조수를 잘 아는 구루시마 장수에게 선봉장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소장은 원래 군수물자 조달 책임자로 조수에 어둡습니다.”

“알겠다. 총공격을 할 때는 당연히 구루시마 장수가 선봉장이 되어야지.”

“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배에서 내려 육지로 가겠습니다.”

와키자카는 간 마사카게가 왜 육지로 서둘러 내려가겠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선수군의 협선처럼 작은 배인 중선을 타고 사라지는 간 마사카게를 향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란포진 관아의 미기(美妓)한테 홀렸군.’

“대장님, 방금 무어라 했습니까?”

구루시마의 물음에 와키자카가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몰라도 되지. 며칠 뒤 총공격에만 집중해. 이순신의 목을 벨 생각만 하면 되네.”

와키자카가 말한 미녀기생이란 다름 아닌 어란이었다. 어란포진 관아의 부역을 담당하는 구실아치 어란은 어란포 바다에 정박한 왜선의 왜장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최고의 인기 있는 처녀가 돼 있었다. 그러나 선봉장 간 마사카게가 이미 어란을 강제로 차지하여 애첩으로 삼아버린 탓에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벽파진해전이 끝난 뒤 3일 동안은 공방이 없었다. 왜군 대장 와키자카가 국지전이 아닌 총공격 전술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순신은 각 장수들을 대장선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왜놈덜이 3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디 무신 일인지 조방장이  
몬자 말해봐유.”

“우리 전력이 억수로 강헌께 숨고르기를 하는 거 같습니더.  
놈들은 반드시 우수영을 집어삼킬라꼬 덤벼들 낚니더. 그러니  
벽파진부터 철통같이 막아야 됩니더.”

조방장 배홍립의 말을 권준이 받았다.

“놈들은 우리 화포공격에 맥을 추지 못했소. 두 번 싸움에서  
놈들이 일찍 후퇴해버린 탓에 크게 타격을 주지 못해 아쉽지만  
놈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니겠소?”

이순신이 김억추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었다.

“우수사도 말해봐유.”

“소장은 벽파진에서 버티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보그만요.”

“으째서유?”

“왜군과 싸움은 한 번에 끝내부러야지 질질 끌어붙든 전력이  
약헌 우리가 불리해질 거그만요. 벽파진에서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그만요.”

“나두 명량이 결전할 장소라구 믿지만서두 여그를 1차방어선으로 삼자는 거지유.”

김억추가 언성을 조금 높여 말했다.

“우리는 1차방어선, 2차방어선을 생각할 전력이 아니지라. 오직 1차방어선이 최후방어선이라고 생각함시로 싸와야지라.”

배홍립과 권준, 김응함, 안위 등이 김억추의 주장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특히 권준이 더 못마땅한지 길게 말했다.

“김 수사는 우리 전력이 약하다고만 하는데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오? 나는 어란포, 벽파진 싸움에서 큰 전과는 없었지만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우리 군사들이 적을 물리침으로 해서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하오. 그것도 큰 전과가 아니겠소?”

이순신이 권준의 말에 동조했다.

“권공의 판단은 옳구먼유. 우덜은 두 번의 작은 승리루 인해 이기는 군사가 돼가구 있구먼유.”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에다 전술 전략에 밝은 송희립만 단 한 번의 전투에 모든 전력을 쏟아 붓자는 김억추의 주장에 동조했다.

“통제사 나리, 우수사 말썸이 웁그만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심을 쏘아 붓어부러야 왜놈덜이 두려워서 물러갈 것입니다요.”

“나도 우수사의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진을 당장 옮겨 가면서 왜적에게 쫓기는 모양새는 되지 말아야 혀. 왜적두 우덜 동향을 환허게 보구 있으니까.”

이순신은 김억추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장수들의 의견을 참작했다. 벽파진에서 며칠 더 방비하다가 최후방어선을 명량으로 올리자는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김억추가 자기 관할 지역이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며칠 전 여러 장수들이 이순신에게 김억추가 수사답게 좌고 우면해야 하는데도 최전방에서 싸우는 만호처럼 너무 설친다고 평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했다. 조방장 권준이나 배홍립은 열댓 번의 해전을 함께 치르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동지들이었다. 이순신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순신에게 순간의 감정은 그 순간일 뿐이었다. 전장에서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했다.



때마침 중앙절이었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해 녹도 만호 송여종과 안골포 만호 우수를 불러 모든 장졸들에게 특식을 먹이라고 명했다.

“나는 아직 상중의 몸이지만 제주에서 구해온 소 다섯 마리를 줄 테니께 모든 장졸덜이 배부르게 먹두룩 하게.”

“장수덜은 국물만 마시고 괴기는 수졸덜 차지가 되게 허겼습니다요.”

“그라믄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이네. 배부르믄 싸움두 잘 허는 겨.”

이순신의 지시에 따라 아침부터 잔치가 벌어졌다. 북 치고 나발을 부니 조용했던 벽파진이 갑자기 시끌벅적했다. 양민들도 뽕과리와 징을 가지고 나와 장졸들을 위해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녹도 만호 송여종의 판옥선 갑판에서는 각력 시합이 벌어졌다. 여러 판옥선에서 대표선수가 나와 출전했다.

유시(오후 5시)가 되어 각력 시합이 결승에 이르자 장졸들의 함성이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그런데 결승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비상이 걸리고 말았다. 척후선이 달려와 적선의 출현을 알렸다.

“적선 쪼맨헌 배 두 척이 감포도에 나타났습니더!”

적선 2척이 어란포에서 진도 감포도로 들어와 정탐하고 있다는 척후장 조계종의 보고였다. 이순신은 조방장 배홍립에게 묻고는 즉시 영등포 만호 조계종에게 지시했다.

“추격허! 쪼그만헌 적선이니께 우덜 전선 한 척이믄 충분허.”

배홍립이 말했다.

“우리 중앙절 잔치에 재 뿌리는 억수로 재수 읊고 고약한 놈들입니데이.”

“그래두 적을 발견헌 조 만호가 경계를 잘헌 거.”

각력 시합을 구경하던 여러 장수들은 곧바로 자신이 지휘하는 판옥선으로 돌아갔다. 결승까지 오르면서 발목을 조금 다친 각력 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다 이겼다고 여기던 선수는 판옥선 갑판을 치며 분해했다.

조계종은 두어 식경 후에 돌아와 또 다시 이순신에게 보고를 했다.

“우리 전선이 화포를 쏘면서 추격허니 적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더. 당황한 나머지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죄다 던져빠리고 내뺐습니더.”

적선의 출현으로 각력 경기를 중단하고 비상경계로 돌아갔지만 장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김억추는 혀를 차면서 아쉬워했다. 척후장 조계종이 적선을 쫓아버리는 것에만 만족해해서였다. 아무리 적선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된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두 개의 돛을 펴고 격군들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으면 따라잡아 왜적을 사로잡았을지도 몰랐던 것이다.

김억추의 부하인 장흥 출신 군관 김위가 말했다.

“수사 나리, 몸이 불편하신게라?”

“몸은 괴안찮은디 맴이 쪼깐 거시기허네.”

“으째서 그라신지 짐작이 가는그만이라.”

“통제사 나리 주변 장수덜이 나를 보는 눈이 꺾적지근해부러. 희립이나 여종이 같은 이짝 전라도 출신 장수덜은 안 그라지만 말여.”

“배 조방장님은 경상도고 권준 조방장님은 경기도지라. 그래도 통제사께서 나리를 선봉장으로 땡기신 것은 신임허신다는 뜻이 아닐께라?”

“시방은 달라. 이러다가는 우수영이나 지키라고 유진장으로 주저앉혀볼 수도 있어.”

“그럴 수는 읊지라. 그란다문 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요.”

“쓰잘떼기 읊는 소리 말어. 장수는 상관의 명에 죽고 사는 것잉께.”

“여그 바다를 수사 나리멩키로 잘 아는 장수가 으디 있는게라. 여그 바다를 모르는 장수들이 앞장 선다문 고건 필패지라.”

“허어, 그런 소리 말랑께. 나는 화포 쏘는 전선덜 궁댕이를 보문서 얼짱거리는 후위장을 말더라도 최선을 다해불 턴께.”

“나부텀 불만인디 나리 동상덜은 참말로 더하졌지라.”

김억추는 우수영에 남아서 늙은 토병이나 새로 차출한 양민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동생들을 잠시 떠올렸다. 당숙 김충서의 아들인 김대복이나 동생들이 있었다면 형 김억추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였을 터였다. 더 나아가 큰소리가 났을지도 몰랐다. 김대복은 이순신 휘하에서 견내량해전 때 한후장으로 싸운 바 있었다. 동생들뿐만이 아니었다. 뒤늦게 우수영으로 와서 합류한 막내당숙 김충절도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가을비가 오고 된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장대까지 선득한 빗방울이 들이쳤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빗방울도 삭풍에 날리는 눈가루처럼 차가웠다.

“얼능 내려가 보게. 된바람에 판옥선 닻이 이리저리 끌릴지 모르게. 야물게 단속허게.”

“예, 수사 나리.”

김위가 장대를 내려갔다. 김억추는 장대에 비스듬히 앉아 강진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결심만 하면 이순신의 허락을 받고 한결음에 강진 고향집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김억추는 어란포 바다에 왜적이 몰려와 있어 차마 그러지를 못했다.

수질을 핑계로 육지로 내려갔다가 슬그머니 줄행랑쳐버린 배설을 누구보다도 더 비판한 장수가 자신이었던 것이다. 김억추는 혼잣말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 세상천지에 나뎡기로 한심헌 불효자가 으디 있을까.’

얼굴에 찬 빗방울이 달라붙었다. 된바람이 장대를 뒤흔들며 빈 바다를 거침없이 불어갔다. 소금 알갱이 같은 빗방울이 눈썹에 얹히고 반백이 다된 수염에도 달라붙었다.

‘아버님, 불효자 억추를 용서해부씨요. 이 싸움이 끝나면 아버님을 편히 잘 모셔볼라요.’

김억추는 장대에서 가만히 일어나 강진 쪽을 향해서 큰절을 했다.

한번으로 성이 차지 않아 두 번, 세 번을 엎드렸다. 세 번째 절하고 일어설 때 기어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굵은 눈물이 장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김억추는 다시 한참 동안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우수영을 돌아가면 동생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바로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도 못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고 불효자라는 자책이 들어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나 김억추는 휘하 장졸들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누우쳤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왜장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었다. 가장 큰 효도란 왜장을 죽여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김억추에게는 충(忠)이 효(孝)고, 효가 곧 충이었다. 김억추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런 뒤 장대를 내려와 장졸들의 전투태세를 점검했다. 가을비는 멈추었지만 된바람이 여전히 사납게 불어 젖혔다. 다행히 판옥선은 된바람에도 닻이 끌리지 않고 제 자리에서 크게 흔들리기만 했다. 그때였다. 벽파진 맞은편 바닷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란포로 정탐을 나갔던 탐망군관 임중영이 배를 보내달라는 신호였다. 각 장수들은 모두 임중영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이순신이 즉시 협선을 보내 임중영을 신고 왔다. 임중영은 이순신과 여러 장수들 앞에서 정탐결과를 보고했다.

“적선 2백여 척 가운데 55척이 어란 앞바다에 들어와부렀 그만요.”

“또 다른 정탐은 읊는 겨?”

“이달 6일에 달마산에 갔다가 적에게 잡혀 포로가 된 김중걸이란 자를 만났지라. 김해 김가라는 사람이 왜장에게 빌어 결박을 풀어주자 때를 보아 도망쳐온 자그만요.”

“김해 김가가 여자인 겨, 남자인 겨?”

“김해 김가라고만 김중걸헌티 들었어라우.”

김중걸이 김해 김가를 보호하기 위해 임중영에게 김해 김가의 성별을 흐렸는지도 몰랐다. 이순신은 김해 김가가 어란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김해 김가가 김중걸에게 무신 정보를 흘려줬다는 말인 겨?”

“김해 김가가 김중걸 귀에다 대고 몰래 얘기해주었는디 왜장덜이 ‘조선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추격해서 군사를 죽이고 배를 불태웠으니 극히 통분할 일이다.’

각처의 배를 불러 모아 합세해서 조선수군을 섬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자.’ 고 하였다고 합니다요.”

“김해 김가가 김중결을 도망치게 도와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 거. 더구나 왜놈덜이 총공격을 한다는 첩보를 전해주었으니 김해 김가의 의리가 가상허구먼.”

이순신은 전령선을 우수영으로 보내 포작선을 탄 채 바다에서 살고 있는 피난민들을 육지로 올려 보내도록 조치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 13척과 작은 협선들이 정박하려면 우수영 바다가 비워져 있어야 했다. 마침내 결전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계속>